



진흙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품귀현상을 일으키며 인기를 얻는다.

93.8.17

고운피부 다듬기 진흙화장품 인기

국내 화장품업체에 「머드」, 즉 진흙을 이용한 화장품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해 가을 코리아나화장품이 첫선을 보인 아트피아 머드팩을 선두로 아모레(머드마스크), 럭키(아제리스머드팩)가 가세한 이 시장은 올해 판매액 2백억 원규모를 무난히 달성하리라는 게 관계자의 견해다.

진흙의 끈끈한 성질을 이용한 피지흡착으로 인한 피부청결효과, 오랜 세월 피오린, 개암 속의 기체 성분

담을 효능으로 내세우는 진흙미용법은 외국에서도 이미 일반화한 것으로, 피부미용제품은 물론 두발용품, 살빼는 용도의 것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질 좋은 진흙은 이스라엘의 사해호와 캐나다의 빙하토, 캘리포니아의 소포트클레이, 프랑스 지중해 연안토로 알려져 있고, 국내 업체들만 이 중 사해와 캘리포니아에서 자연 그대로의 흙이 구적되어

코리아나이어 아모레등 가세... 올판매액 200億예상

중립속이 저가본 원료 수입하고 있다.

『진흙외에도 도자기 원료인 클레이, 맥반석 카울린, 캐나다와 뉴질랜드화산재, 해조침전물 다양한 광물 이 오래전부터 피부미용재료 사용되어 왔 나다. 이에 유된 칼슘 마네슘 아연 등 부한 미네랄 분이 피부트블에 효능을 이면서 제조 도 까다롭지 고 방부제 등 가물의 해도 기 때문일다

「이들 국내 품의 출현이 에도 3년여 부터 수입제 들이 많이 쓰 저 왔다」는 미용연구가 순희씨(한독 부미용화원 장)의 설명. 러나 대체로 성피부에 가 효과가 큰 진

패은 노화피부나 건성피 에 사용시는 지나치게 부의 지방질을 뺏아갈 려가 있으므로 요구르트 섞는 등 다소 세심한 주 를 요한다고 얘기한다.